

HRI 체어퍼슨노트

CHAIRPERSON NOTE

2011.06.20 (통권353호)



경제이슈

IMF, 그리스 구제금융 계속 지원

5월 고용증가세 지속

경영노트

지금이라도 지속가능경영에 뛰어들어라

사회 트렌드

처음으로 줄어든 핵심생산인구

저널 브리프

K-Pop의 성공 비결

洗心錄

제대로 쉬어보자

□ IMF, 그리스 구제금융 계속 지원

- 국제통화기금(IMF)은 17일 이메일 성명을 통해 그리스에 대한 구제금융을 계속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발표
 - 5차 구제금융 집행 : 19일~20일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를 통하여 그리스에 대한 IMF와 유로존의 5차분 구제금융(약 120억 유로) 집행여부를 결정
 - 그리스 재정긴축안¹⁾ 승인여부 : 그리스에 대한 IMF와 유로존의 추가 구제금융의 전제조건인 그리스 재정긴축안이 이달 말 그리스의회 표결을 앞두고 있어 의회 승인여부에 귀추가 주목됨
- 그리스 재정긴축안이 의회를 통과할 경우 그리스에 대한 IMF의 지속적인 지원으로 그리스 재정위기는 일단락될 것으로 보이나, 재정긴축안에 대한 그리스 내부 반발로 의회 통과여부가 불투명한 상황

□ 5월 고용증가세 지속

- 1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1년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신규취업자수는 국내경기 회복 흐름에 힘입어 완만한 회복세를 유지
 - 취업자수 : 수출호조세가 지속되고 제조업 가동률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등 고용여건이 양호한 흐름을 기록하여 취업자는 2,466.1만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5.5만 명 증가
 - 실업률 : 경기회복에 따른 구직활동 증가로 실업자수는 소폭 증가하였지만 실업률은 3.2%로 전년동월대비 동일
 - 청년실업률 : 청년실업률은 7.3%로 전년동월대비(2010년 5월 6.4%) 0.9%p 증가하여 여전히 높은 수준
- 고용의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의 취업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정부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 유인형 제도 개편 노력이 요구됨

1) 그리스 정부는 향후 5년간 500억 유로의 국유자산 매각과 중기 재정긴축을 골자로 하는 재정긴축안을 마련하여 의회 통과를 추진 중

□ 지금이라도 지속가능경영에 뛰어들어라²⁾

-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며 많은 사람들은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었다고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지속가능성에 대한 투자가 오히려 증가
 - BCG의 조사 결과 2009년에는 25%의 기업이 지속가능성에 대한 투자를 강화할 것이라고 응답했으나 2010년에는 59%로 크게 증가
 - 이는 지속가능성이 경쟁 우위가 될 수 있으며, 머지않은 미래에는 반드시 필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생각하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
- 하지만 지속가능성에 대한 투자의 기업 간 차이는 더욱 커지고 있으며, 선두 주자들이 성과를 창출하는 동안에도 여전히 무관심한 기업도 많음
 - 사실 지속가능성은 기존의 비용 구조 및 자원 활용의 효율화 개념에 사회적 책임의 의미를 덧붙여 다른 단어로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음
 - 특히 자원 소비가 많은 산업에 속한 기업들은 지속가능성을 외면할 경우 기업 평판 훼손은 물론 비용 증가의 문제를 피할 수 없음

< 지속가능경영의 선두 주자 따라잡기 >

	내 용
확실한 데이터를 기다리다간 뒤쳐진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속가능경영의 선두 기업들은 초기에 과감한 대응이 필요함을 깨닫고 확실한 데이터가 나오기 전에 투자를 시작함 •반면 나머지 기업들은 정보 부족을 이유로 투자를 꺼리지만, 선두 기업들은 직접 경험으로 확보한 경쟁 우위(정보)를 공개하지 않음
스스로 데이터를 만들어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속가능성에 대한 투자 성과의 측정과 평가 방법을 개발하고 데이터를 축적해나가야 함 •또한 브랜드 가치 평가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처럼 지속가능경영의 무형적 이익에 대해서도 무시하지 않고 평가하는 것이 중요
장기 비전과 단기 수익 창출의 균형을 찾아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두 기업들은 지속가능성에 대한 투자 목표를 장기적으로는 기업 브랜드 향상으로, 단기적으로는 실제 손익의 효과 발생으로 설정 •이는 지속가능성에 대한 계속된 투자를 이끄는 요인으로 지속가능경영에 성공하는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의 가장 큰 차이임
Top-Down으로 시작하되 Bottom-up을 이끌어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직원들이 확실한 데이터 없이 지속가능경영을 먼저 주장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경영진이 먼저 나서서 독려해야 함 •한편 조직원들은 의외로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많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어 이를 스스로 이끌어내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
지속가능성의 투명한 공개를 두려워하지마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속가능경영의 선두 기업들은 자사의 지속가능성 현실에 대하여 강점은 물론 단점까지 과감하게 공개하여 내외부의 신뢰를 얻음 •이는 후발 주자들이 성과 및 장점만 공개하며 겉으로만 친환경 기업인 척한다는 비난을 받는 것과 대조되는 부분임

2) 본 자료는 “New Sustainability Study: The ‘Embracers’ Seize Advantage”(Boston Consulting Group, MIT Sloan Management, 2011.5)를 요약 정리함

□ 처음으로 줄어든 핵심생산인구³⁾

- 경제 활동의 주력 부대, 가장 왕성하게 일할 나이인 25~49세의 인력, 즉 핵심생산인구가 줄어들고 있음
 - 지난 14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일 현재 내국인 기준 핵심생산층은 1953만 명으로 2005년 총조사보다 36만 명 줄었음
 - 수백만 명이 희생된 한국전쟁 기간에도 꿈쩍 않던 핵심생산층이 줄어든 것임
 - 앞으로 8년 후에는 절대 인구 자체가 감소
- 핵심생산층 감소의 결정적인 배경은 저출산인데, 여성의 합계출산율(평생 동안 낳는 평균 자녀수)이 70년 4.53명에서 지난해 1.22명으로 떨어짐
 - 여기에다 1955~66년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들이 핵심생산층에서 빠져나가고 있음
- 인구 감소는 엄청난 사회·경제적 충격을 동반함
 - 생산성 하락과 소비 위축으로 경제가 활력을 잃고 잠재성장률도 하락
 - 일하는 사람은 줄고 복지·의료 지출이 늘면서 재정수지는 악화
 - 국민연금도 50년 후에는 고갈될 전망. 사회보장의 양대 축인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이 인구 재앙으로 쑥대밭이 되는 것은 시간문제임
- 인구 변동은 나라 살림의 기본이자 미래 국가 전략의 출발점
 - 인구 감소가 급격히 진행되면 지속가능한 사회 발전은 불가능
 - 자산시장도 돌이킬 수 없는 변곡점을 맞게 되는데, 주력 주택구매계층(35~55세)이 줄면 가계 자산의 80%가 몰려 있는 부동산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음
 - 단카이세대(46~49년생)가 은퇴하면서 부동산 거품이 붕괴된 일본과 똑같은 길을 걷지 말라는 보장이 없음
 - 저출산과 인구 감소는 국가 쇠망의 가장 분명한 조짐으로서, 좌우 이념이나 세대 차이를 떠나 우리 공동체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과제라는 점을 철저히 인식해야 함

3) “돈 쓸 곳 있는데, 돈 벌 사람이 줄어”(중앙일보, 2011.6.15) 참조

□ K-Pop의 성공 비결⁴⁾

■ 최근 ‘소녀시대’ 등 SM엔터테인먼트 소속 가수들의 공연이 프랑스에서 큰 성공을 거두면서 K-Pop의 성공 비결에 관심이 쏠리고 있음

① 보편성을 가진 콘텐츠 기획

- SM은 한국색을 배제하고 전세계 대중들이 보편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감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이를 위해 300여 명의 해외 음악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정기적인 컨퍼런스를 통해 세계적인 음악 트렌드를 포착하고,
- 유럽 작곡가의 곡과 미국 안무가의 춤, 한국 프로듀싱 역량을 결합하여 세계 각국 소비자들의 기호를 반영한 음악 콘텐츠를 만들어냄

② SNS 등을 활용한 공식 소통 채널 구축

- SM은 SNS 등을 활용하여 공식 소통채널을 구축하고 팬들과의 소통을 추구함
- 지난해 SM 소속 가수들의 뮤직비디오는 유튜브를 통해 6억 건의 조회수를 기록했으며 올 1월부터 4월까지 조회수도 4억 건에 이룸
- 이번 SM 가수들의 파리 공연에서도 페이스북과 유튜브에 소속사가수들의 입출국 장면, 리허설 장면 등을 올려 팬들의 관심을 유도함

③ 철저한 트레이닝 시스템

- SM은 연간 10~20억 가량을 투자하여 치열한 경쟁을 뚫고 선발된 연습생을 대상으로 안무, 보컬, 연기 등을 가르침
- 수업도 매우 세분화되어 있어 안무의 경우 재즈댄스, 힙합, 비보이 등 다양한 장르로 나뉘며 가수들이 표현력과 감성을 배울 수 있음
- 이 같은 오랜 트레이닝을 통해 한국의 아이돌그룹은 무대 장악력과 퍼포먼스 측면에서 높은 경쟁력을 보유함

④ 글로벌 인재 영입

- SM은 한국은 물론, 미국, 중국, 대만 등 세계 각국에서 오디션을 개최하여 기획단계에서부터 글로벌 인재를 선별하고 있음
- ‘소녀시대’의 티파니와 제시카나 ‘에프엑스’의 중국인 멤버도 빅토리아도 이러한 SM의 글로벌 인재 전략의 일환임
- 이들 글로벌 인재를 현지 팬들과 소통하고 친밀감을 높이는 데 기여

4) 「유럽 달군 K팝...글로벌·유튜브·맞춤 전략으로 ‘대박」 (한국경제, 2011.6.13) 참조

□ 제대로 쉬어 보자

일상에 매달리다 보면 가끔 내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모를 때가 있다. 이러한 시점이 우리가 휴식을 취해야 하고 생각을 다듬어야 할 때다. 랜디 포시는 「마지막 강의」라는 저서에서 “우리 모두 한정된 시간과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삶에 대한 불만 없이 오늘 하루를 잘 보내면 오늘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된다고 했다. 또한 메튜 에들런드의 <휴식>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

『얼마나 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쉬느냐가 중요하다.
당신이 늘 피곤한 이유는
휴식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휴식의 방법이 틀려서이다.
진정한 휴식은
회복하게 해주는 것이다.』

짧지만 여름휴가를 알차게 보내면 일상적인 생활을 하기 위한 에너지가 충전될 것이다. 휴가라는 한정된 시간에 스트레스도 풀고, 에너지도 재충전하려면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쉬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각자 자기만의 취미와 성향을 가지고 있으므로 거기에 맞게 쉬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것이다. 제대로 쉬는 것이 말처럼 쉬우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이번 휴가에는 마음을 편히 먹고 몸과 마음이 모두 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자. 내가 제대로 쉬었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제대로 휴가를 보낸 것이라고 본다. 자! 이번 여름 휴가는 제대로 한번 쉬어 보자.

“ 모든 불행은 단 한 가지,
고요한 방에 들어 앉아 휴식할 줄 모르는 데서 비롯한다.”

- 파스칼(1623~1662) : 프랑스의 수학자, 철학자